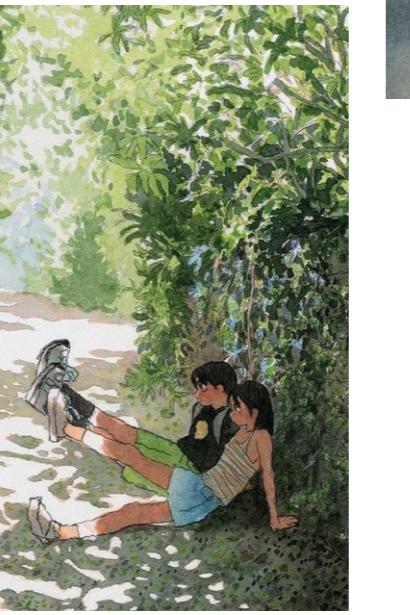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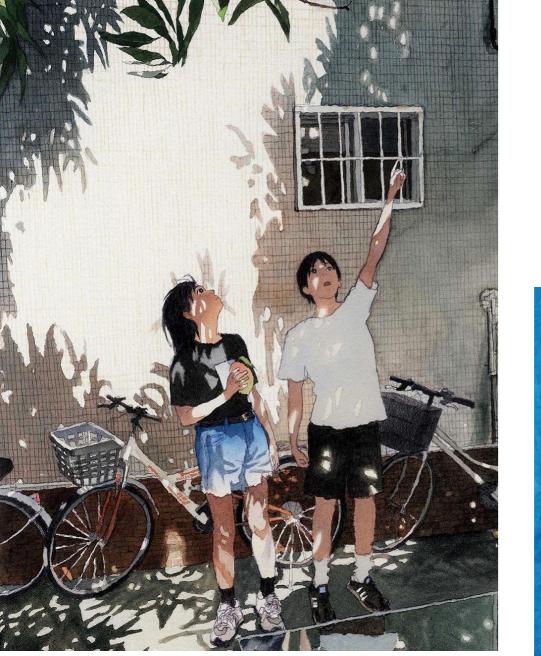


성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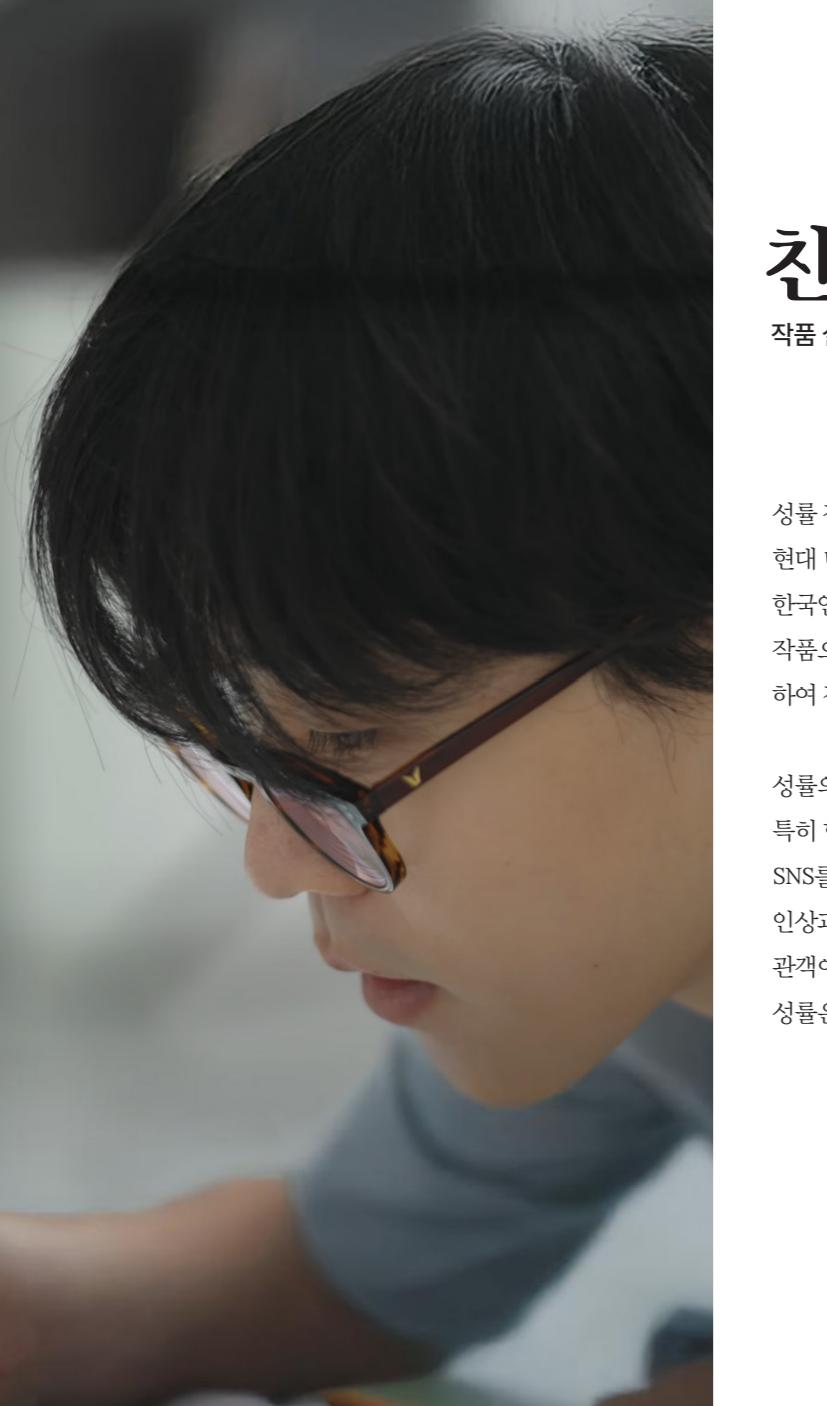
2022 Salad Days (watercolor)





2020년:『여름 안에서』

2024년:『뜨거운 햇빛과 서늘한 그늘』



찬란한 여름을 담는, 성률

작품 설계 인터뷰

성률 작가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정적이고 감각적으로 탐구하는 현대 미술가다. 제16회 일본국제만화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편 만화 '여름 안에서'를 통해 한국인 최초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작품은 순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며, 찰나의 상상을 작품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업은 주로 자연과 풍경을 중심으로 하여 감정과 서사를 결합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성률의 작품 세계는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미술과 다양한 매체를 포함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이면서도 꿈같은 요소를 담아내어 관객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작업 과정을 꾸준히 공유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일상 속 순간적인 인상과 상상을 바탕으로 예술적 서사를 시각화한다. 그의 예술적 시도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관객이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인간의 내면을 재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률은 앞으로도 꾸준히 자신의 상상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뜨거운 햇빛과 서늘한 그늘 Sunshine and the Sh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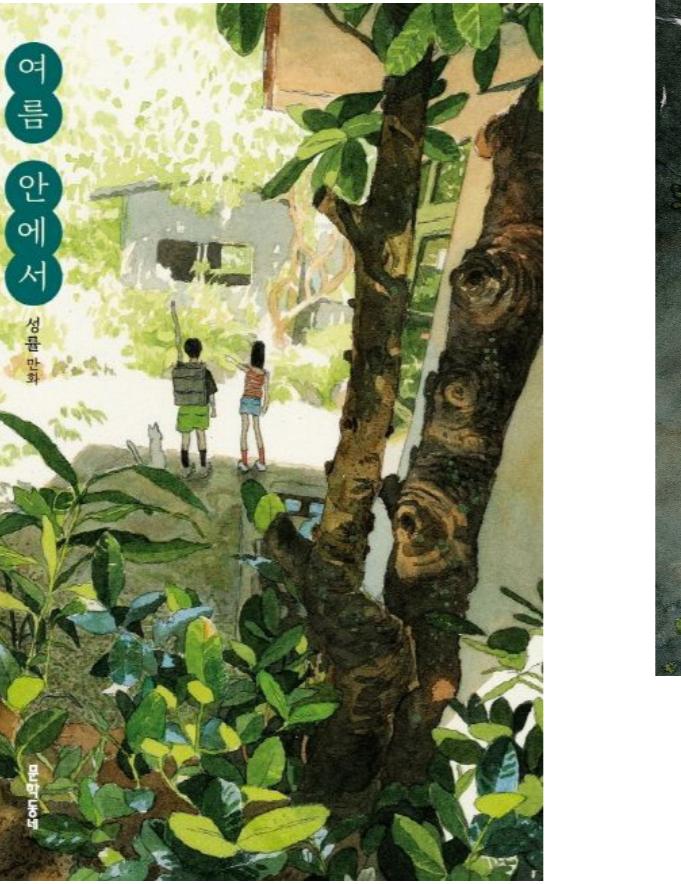
성률 개인전 Seongryul Solo Exhibition

2024.08.09 ~ 2024.09.29



성률 작가는 2024년 8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서울 한남동 알부스 갤러리에서 그의 첫 개인전인 '뜨거운 햇빛과 서늘한 그늘'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수많은 작품과 새로운 시도를 한 대형 수채화 및 아크릴 작업까지 총 1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작가 본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전시였다. 전시의 제목처럼 '뜨거운 햇빛과 서늘한 그늘'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일상과 몽상을 오가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관람객들이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여름 안에서라는 만화로 일본국제만화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영광이라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작품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독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생각에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도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만화 산업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준 분야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진심을 담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파노라마』 여름 안에서 수록집

해리는 5년 전, 땅볼립으로 세상을 떠난 수미에게 바다를 보여주겠다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일본인 친구 치에를 만나게 되며 해리의 여행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나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치에의 상황에 자꾸만 수미의 옛 모습이 겹쳐 보인다.
그때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것. 수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와 치에에게 건네는 새로운 인사. 파노라마는 안녕과 안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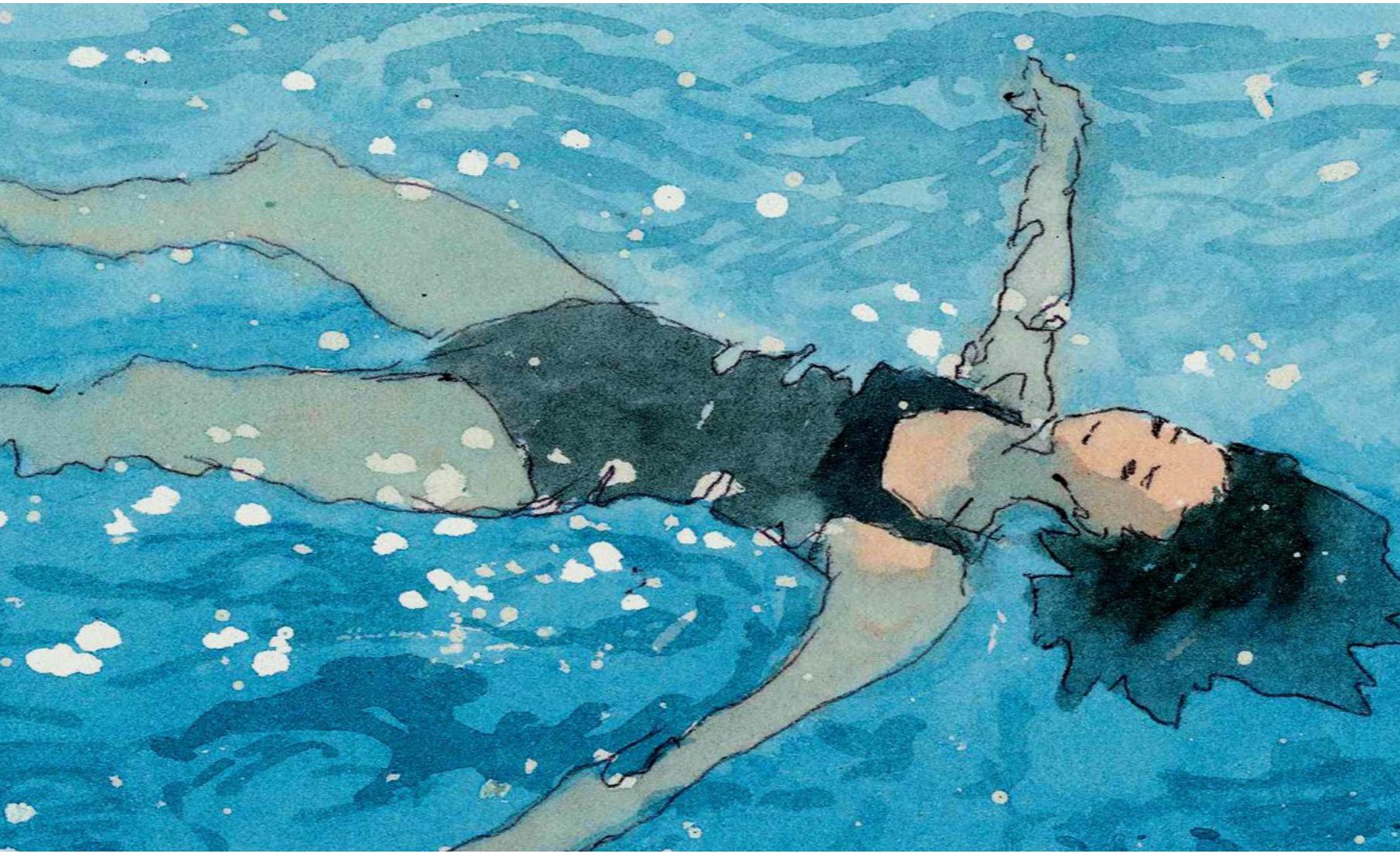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나 소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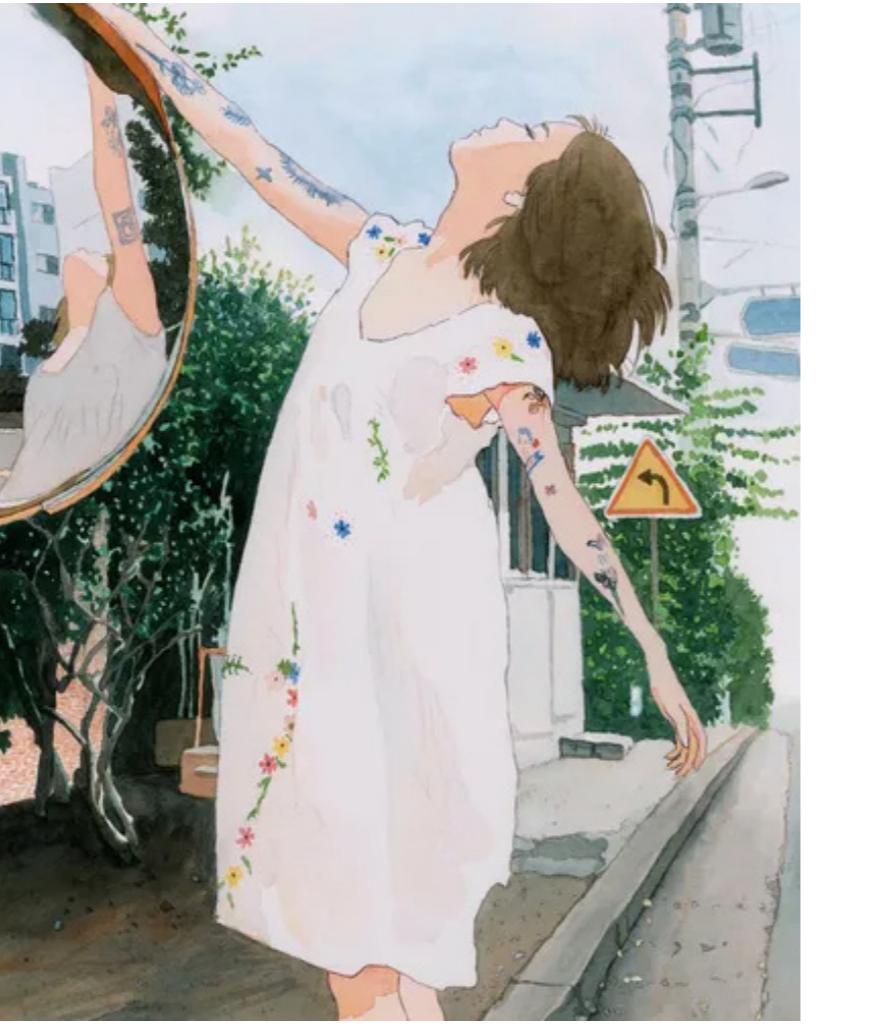


저의 작품에서는 시간이 지나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공간을 자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보았던 골목길이나 오래된 건물과 같이 현대의 일상 속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소소하고 사소한 곳에서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제가 가진 회상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나아가 보는 이들에게도 각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사라져가는 공간'을 상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작품에 수채화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채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물감이 종이에 닿는 순간 일어나는 즉흥적인 표현이죠.
덧칠 없이 한 번에 완성된다는 특성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순간적인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데, 수채화가 바로 이러한 저의 의도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전하고 싶은 미묘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가수 백예린님의 앨범커버를 작업하는 방식으로 협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백예린『선물』



백예린님이 평소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창작자로서 느끼는 감정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음악에서 오는 잔잔한 감정과 진솔함이 제 그림과 잘 어울린다고 느껴, 흔쾌히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의 음악이 가진 감성과 그 깊이를 시작적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청량하면서도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나는 분위기를 그림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푸른 새와 함께 적절한 색감과 구성으로 음악과 잘 어우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성률 작가의 작품 세계는 인간과 일상의 상처, 그리고 치유와 희망을 깊이 탐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슬픔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이를 통해 현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성률 작가는 특히 불안과 소외감을 직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관객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돋는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깃든 연약함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치유의 가능성과 희망을 함께 탐구한다.

작품에는 반복되는 이미지와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관객에게 감정적 연결 고리를 형성하게 하며 일종의 위안을 제공한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감정을 통해 보는 이들이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상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인간이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회화와 드로잉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관객이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개인적인 상처가 공감과 연대를 통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감정적 해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감상자를 위로하고 치유한다. 특히 어두운 색조와 부드러운 선의 사용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관객에게 고요한 힘을 전달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회화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는 중요한 예술적 매체로 자리 잡았다.